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시상식 개최

영국한국교육원(원장 김수경)은 11월 27일(금)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글쓰기 대회 시상식은 주영한국대사관에 수상자 및 가족을 초청하여 축제와 같이 진행되던 행사였지만, 올해는 COVID-19으로 인한 제약으로 온라인 화상 미팅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추억’, ‘인터넷 세상’,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10월 9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각 학교별로 개최되었다. 수상작 64편은 각 학교별 대회 우수작 105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입상 학생 64명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부모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장원을 수상한 런던한국학교 강윤재(유년부), 영국북동부한글학교 김주안(초등부), 런던한국학교 허지원(중등부), 런던한국학교 자스민 크라우치(다문화부) 학생의 작품 낭독과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윤태영 선생님의 심사평에 이어, 박은하 주영대한민국 대사의 상장 및 부상 수여가 있었다.

박은하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어린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좋은 작품을 제출해준 것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소프트웨어 강국 2위임을 밝힌 모노클 잡지를 소개하며 한국과 영국의 강점을 한글학교 수업을 통해 결합시킬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한글학교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판데믹 속에서도 온라인 시상식을 통해 아이들이 상장 수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어 감사하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행사였다.”고 했다.

- ▽총 입상자수 : 총 64명
- ▽부문별 입상자수
 - 유년부(초1 ~ 3) : 16명
 - 초등부(초4 ~ 6) : 17명
 - 중등부(중등) : 15명
 - 다문화부 : 16명



구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문화부		
	학교	학년	이름	학교	학년	이름	학교	학년	이름	학교	학년	이름
장원	런던	초3	강윤재	북동부	초4	김주안	런던	중3	허지원	런던	중2	크라우치 자스민
금상	카디프	초2	이설	맨체스터	초4	김도은	북동부	중3	이진우	강북런던	중2	이마야
	런던	초1	조클로이	카디프	초6	장효인	버밍엄	중1	박재원	브리젠드	초4	이유리
은상	강북런던	초3	이예은	셰필드	초5	이가영	카디프	중1	김도현	런던	초5	류프레야
	강북런던	초2	조아라	맨체스터	초4	이창민	북동부	중1	송지원	강북런던	중2	하나윌터
	런던	초3	김민지	강북런던	초6	백서빈	카디프	중1	이은	런던	초6	파이프 세라
동상	버밍엄	초2	장지은	브리젠드	초6	이신	런던	중3	신민하	런던	중1	박영원
	버밍엄	초2	김진성	북동부	초6	임에서	런던	중3	정가희	런던	중1	윤하나
	코벤트리	초2	전하연	강북런던	초5	정지오	셰필드	고1	이대영	맨체스터	중1	소피 바라타
	북동부	유치	김지아	런던	초5	김민서	맨체스터	중1	이나림	맨체스터	초4	모니카 손
장려상	런던	초3	강민준	카디프	초4	장세인	강북런던	중2	함다민	브리젠드	초3	에스더 모리스
	맨체스터	초3	전민준	런던	초6	최성민	스완지	중3	임세린	옥스포드	중2	자스민 만슬
	런던	초2	주소윤	레딩	초6	김재민	강북런던	중1	정이안	강북런던	중1	양제롬
	아버딘	초2	김윤재	리즈	초5	손해린	셰필드	고1	이조슈아	북동부	초2	앤드루 슬론
	코벤트리	초2	조민	브리젠드	초4	이환	스완지	고1	이가은	스완지	중1	데릭 세라
	본머스	초2	박수지	싸우스햄튼	초4	신지호				브리즐	초3	케니 쿠엔틴 민성
			케임브리지	초6	이승민							



유년부
장원작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인간이 세상엔...
제 목	인간이 세상엔...		

이제는 정말 힘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가고, 친구들과도 못만나고, 친구들과도 못만나고, 친구들과도 못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계획했기 때문에 재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부 사용했을 때에는 학교가 폐쇄되어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의 시작은 역시물 공존나 바이러스는 따윈 없었고, 우리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살펴보고 노력했어야 마상내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듯만 주었습니다.
술과 친구들이 귀머리라 통해 서우를 통상안개 해우로 정족년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모습을 서로가 흔이로 보습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3번 중(1)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인간이 세상엔...
제 목	인간이 세상엔...		

있습니다.
어는 날 저는 조지프슨은 콘스탄의 어머리는 배낭을 등에 싣고 떠나기까지 재가 만화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입니다.
이제 정말 힘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가고, 친구들과도 못만나고, 친구들과도 못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계획했기 때문에 재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부 사용했을 때에는 학교가 폐쇄되어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의 시작은 역시물 공존나 바이러스는 따윈 없었고, 우리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살펴보고 노력했어야 마상내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듯만 주었습니다.
술과 친구들이 귀머리라 통해 서우를 통상안개 해우로 정족년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모습을 서로가 흔이로 보습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3번 중(2)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인간이 세상엔...
제 목	인간이 세상엔...		

그리고 저는 평범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을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라면 컴퓨터에서는 친구들과 직접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친구와 집안으로 서로의 마음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으로 인터넷 세상은 더욱더 진보된 것이라서 어떤 무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 통해 만나고 싶은 것일. 인터넷 세상은 더욱더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달해온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고, 여러나라에 가서 여행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세상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약간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번 중(3)번
주영한국교육원

초등부
장원작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포동부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코로나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코로나와 전쟁		

안녕 내 이름 김치국이야 나는 원래 평범한 13살 새외동생이야 컴퓨터 게임은 3시간정도 놀다가 후내고, 숙제를 밤 12시까지 하고, 잠을 7시간만 잤어. 내 인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그리고 코로나가 당분에 사신은 기분이 정말 좋았어 왜냐하면 학교도 안 가고 하루종일 뽀글뽀글 놀다가 숙제도 안 할 거고 학교도 안 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할 때 정말 안 좋았어. 내 인생은 정말 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하지만 왜지 왜래보다 더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다 같이 경이하려 같이 1주일 뒤에 결과는 좋게였어 내 아버지와 나는 귀찮은 재만 어머니는 정말 심하게 생애이길 와게되어 빨리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 언젠가 병과 화 있을 사람에 우리 집은 소독하 려 왔어,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내가 심하게 걸렸어.

14번 중(1)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포동부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코로나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코로나와 전쟁		

우리 어머니는 정말 건강해서 갑자기 드물게 걸렸는데,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 적이 없어서 정말 무서웠지 너무 큰 충격이어서 신문은 많이 출력해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심하게 걸어야 할 일이 생겼어.

2020년 10월 11일
이 수확들이 내어걸 땀 뜻이 없겠지만, 여 소자나 나 현대 정만 속크고 괴로운 난이여 여 날 내 어머니가 지극히 여나 천국에 같이 남이여 이 난 아리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나는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을 다서의 가아했어. 마시고 병으로 돌아가면서 정신을 잃어, 나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백신 만드는 일로 위회 사귀어하고... 모든 병의 백신을 만들면 내 가족들이 내 나았던 아픈을 안 느끼고 산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다양한 얼굴로 백신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

14번 중(2)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포동부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코로나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코로나와 전쟁		

- 12년 뒤 -
12년 동안 나는 의학 연구를 할 때 명의 개개 은 실험실에서 일하지 힘들었지만 연구 한때마다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무지코수 인물이 갈와져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 5년 뒤 -
사람들이 이리저리 왜하다가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어, 새로운 Covid-37이 3개월 만에 500,000 명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했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거의 다 했을 때 그만 이 드디어 허지만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나도 산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다양한 얼굴로 백신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

14번 중(3)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포동부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초 학 년	한글 제목	코로나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코로나와 전쟁		

결정지만 내가 했을 때 갑자기 화면에 POSITIVE 라고 쓰여있어 내 심장이 두려오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 내 모든 인생이 이 산수한 병 때문에 끝이 나는 건이까? 내가 지금까지 인클 한게 다 썩으까 없어질까? 나의 인생을 다시 만가게 되는 건이까? 그때, 아버지가 더운라내 주사주 내 팔에 꽂고 피를 조금 뽑아 냈어. 그리고 내 조수를 한테 말씀해 "이 커 안에 바이러스 세균을 죽여서 백신 안에 넣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건강하게!" 나의 조수가 이순금 일로 그거를 꼬았었어. 백신을 만들 걸기만 나는 벌써 병이 걸려서 산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약하게 속삭였어, "할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보고싶었어요. 이제 곧 만나요."

14번 중(4)번
주영한국교육원

중등부
장원작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가정 (3주)나 부모 (두주)		

코로나(Covid)란 이름의 국문 상투어 사물인 불행이다. 일하는 고로를 매일 돌아다니며, 길을 돌아다니는 사이 언뜻 눈물 글이 떨어지게 되어있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생활의 의 늘기일 같이 할수없이 목자키에 관한하는 시대의 발전에 없는 자라는 글자

내 밤을 비탈은 울소라에 어머니를
가끔엔 침침이 잠기다씩 관내서 시간여행을 하러 하지만, 어서한 걸음처럼 가고, 할 이 걸음처럼 침침이 걸을 허버어 그런 환상처럼 허합어

시계를 보면, 밤 열시는 날 평우처럼 수습어 없어
꼭 나는 그 새벽의 뒤에 후에 보며, 할은 나를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
서버하면 잠겨진 허우허우는
그를 꾸미는 주머니 없이 떨어지지 주아한다

14번 중(1)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가정 (3주)나 부모 (두주)		

글이없는 달리는 한문어,
까지 부딪을 없는 허합어

만 것은 어떤 겨울에 불타는 여백은 인종같은 글자
제일어 자아에 부하하는 것은
먼저 걸음처럼
여백어 허 걸음처럼 그 것이

꽃이만 여백 허하 허하 불을 불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나는 불행으로 나를 허하 허하
고야 허합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문자 100 시]

14번 중(2)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가정 (3주)나 부모 (두주)		

글이없는 달리는 한문어,
까지 부딪을 없는 허합어

만 것은 어떤 겨울에 불타는 여백은 인종같은 글자
제일어 자아에 부하하는 것은
먼저 걸음처럼
여백어 허 걸음처럼 그 것이

꽃이만 여백 허하 허하 불을 불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나는 불행으로 나를 허하 허하
고야 허합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문자 100 시]

14번 중(3)번
주영한국교육원

다문화부
장원작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가정 (3주)나 부모 (두주)		

코로나(Covid)란 이름의 국문 상투어 사물인 불행이다. 일하는 고로를 매일 돌아다니며, 길을 돌아다니는 사이 언뜻 눈물 글이 떨어지게 되어있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생활의 의 늘기일 같이 할수없이 목자키에 관한하는 시대의 발전에 없는 자라는 글자

내 밤을 비탈은 울소라에 어머니를
가끔엔 침침이 잠기다씩 관내서 시간여행을 하러 하지만, 어서한 걸음처럼 가고, 할 이 걸음처럼 침침이 걸을 허버어 그런 환상처럼 허합어

시계를 보면, 밤 열시는 날 평우처럼 수습어 없어
꼭 나는 그 새벽의 뒤에 후에 보며, 할은 나를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
서버하면 잠겨진 허우허우는
그를 꾸미는 주머니 없이 떨어지지 주아한다

14번 중(1)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가정 (3주)나 부모 (두주)		

글이없는 달리는 한문어,
까지 부딪을 없는 허합어

만 것은 어떤 겨울에 불타는 여백은 인종같은 글자
제일어 자아에 부하하는 것은
먼저 걸음처럼
여백어 허 걸음처럼 그 것이

꽃이만 여백 허하 허하 불을 불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나는 불행으로 나를 허하 허하
고야 허합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문자 100 시]

14번 중(2)번
주영한국교육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진안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 초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학 년	한글 제목	한글기
회차 거주기간	유년 3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가정 (3주)나 부모 (두주)		

글이없는 달리는 한문어,
까지 부딪을 없는 허합어

만 것은 어떤 겨울에 불타는 여백은 인종같은 글자
제일어 자아에 부하하는 것은
먼저 걸음처럼
여백어 허 걸음처럼 그 것이

꽃이만 여백 허하 허하 불을 불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나는 불행으로 나를 허하 허하
고야 허합을 허하 허하 허하 허하

[문자 100 시]

14번 중(3)번
주영한국교육원